

포항시, 세계 제조업 포럼 유치 총력… 밀라노서 협력망 강화

포항 산업·컨벤션 인프라 홍보
롬바르디아 주정부·산업연맹 면담
국제회의 유치 역량 벤치마킹

경북 포항시가 '2028년 세계 제조업 포럼(WMF)'을 유치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WMF 재단·주요 기관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포항시 대표단은 지난 22~23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증권거래소 본사인 '뮈라초 메차노테'에서 열린 'WMF 2026'에 참석해 세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살폈다.

포럼은 '제조업의 미래 향해: 트렌드 나침반과 기술 레이다'란 주제로 열렸으며, 포스텍 김덕영 교수가 '한국과 동아시아의 스마트 제조 혁신 트렌드'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세계 제조업 포럼은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제조업 재단이 매년 여는 글로벌 제조업 논의 플랫폼



포항시가 밀라노서 세계 제조업 포럼 유치에 나섰다.

폼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학계·연구 기관 전문가가 제조업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조업 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제언한다.

이번 방문은 포항시 마이스산업과 국제회의유치팀이 사전에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유치팀은 지난 7월부터 WMF 재단의 마르코 타이쉬 학술위원장, 데이비드 로

메로 학술부위원장, 로사 피로치 COO 등 주요 인사와 소통하며 2028년 포럼 유치 관련 사항과 방문 일정을 협의했다.

대표단은 롬바르디아 주정부와 롬바르디아 산업연맹, 밀라노·롬바르디아 지역 경제 단체 이솔롬바르다·에스밀라노·밀라노 앤 파트너스 관계자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철강 산업의 저탄소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는 포항의 산업 현황과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포항국제컨

벤션센터(POEX) 등 마이스 산업인프라를 소개하고, 2028년 WMF 유치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다.

롬바르디아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롬바르디아 산업 연맹과 이솔롬바르다·에스밀라노·밀라노 앤 파트너스 관계자와 산업계 네트워크를 연계한 마이스·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대표단은 유럽 최대 컨벤션센터인 알리안츠 미코도 방문해 대규모 국제 회의 유치·운영 경험과 친환경, 접근성, 서비스 품질 관리 전략을 살폈다.

이상현 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WMF 재단과 꾸준히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밀라노 현지 주요 기관과의 면담이 성사됐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WMF 재단·현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포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김해시는 지난 23일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행복누리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해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위원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협약에 따른 상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해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87억원을 들여 연면적 2033㎡,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행정 서비스와 문화·복지·체육 기능을 모은 복합 공간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사천시

상품권 캐시백 15%로 확대

사천시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최대 15%로 늘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에는 기존 혜택에 5%를 추가 적립한다. 시는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 행사로 진행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카카오톡 통해 도민 의견 청취

경남도는 26일부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 홍보면에 '모바일 열린도지사실' 연결 메뉴를 새로 둔다고 밝혔다. 도민은 한 채널에서 도정 소식 확인과 문의·상담, 정책 제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식 카카오톡 채널은 도정 소식과 정책 정보를 알리는 창구로, 경남 모바일 열린도지사실은 민원 상담과 도민 의견을 받는 별도 창구로 운영됐다.

개편 뒤에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홍보면에서 모바일 열린도지사실 메뉴를 눌러 도정 문의와 상담, 정책 제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인천광역시와 민간 차원의 외교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민명예외교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명예외교관의 국제적 소양과 민간외교 능력을 높이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해 현장에서의 소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북도, 중국 APEC 연계해 관광객 유치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 성황리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선전·항저우·베이징과 산시성 오대산 일원에서 '2026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을 개최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협력 확대에 나섰다.

선전에서 열린 경북관광로드쇼에는 14만 명이 방문했다. 공사는 '오한(五韓)'을 주제로 한식·한복·한글·한지·K-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에게 경북관광을 알렸다.

선전·항저우·베이징에서는 현지 관광 기관과 여행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도 열렸다. 공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역사문화 관광자원, 특화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관

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망을 넓혔다.

설명회에는 광둥성관광협회, 선전시 문화방송체육관광국, 선전시여행업협회, 저장성여행사협회, 중국여행사협회, 베이징시문화관광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사는 광둥성관광협회와 관광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산시성 오대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와 세계유산을 활용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경북과 오대산의 역사·불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관광교류와 공동 홍보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주 APEC으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인지도를 2026년 중국 선전 APEC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진곤 기자

고양 소상공인·시민 잇는 상생한마당 성료

판로 확대와, 지역 소비 촉진

고양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6년 고양시 소상공인상생한마당'이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고양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6년 고양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고양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판로 확대와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4일 열린 기념식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과 지역 소상공인, 시민들이 참석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여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부스를 찾

아 제품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경영상에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행사장에는 총 100등 규모의 부스가 설치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판매하는 공산품과 수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홍보·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상생한마당이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개척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접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이 스스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산시는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부산관광공사와 26~28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에서 '제2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GCT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서 세계 도시관광 혁신 논의

16개국 31개 도시 대표단 참석 시, 지속가능 관광 협력 모색

세계 16개국 31개 도시의 관광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도시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26~28일 사흘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에서 제2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GCT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컬투어리즘: 도시경제와 관광혁신의 연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31개 도시 대표단과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관광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조세션에서는 로컬투어리즘과 디지털 혁신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고위급 정책세션에서는 부산의 스마트관광과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산살바도르의 지역경제 상생, 마추픽추의 지속가능관광, 콜롬보의 도시 브랜딩 등 각 도시의 관광정책과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20개 도시 시장단이 참여하는 시장회담에서는 '2040 지속가능 도시관광 공동비전'을 선언한다. 또한 관광의 질을 강조하는 '굿투어리즘(Good Tourism)'을 비롯해 해양관광, 웰니스와 지역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 모델, 청년의 관광산업 진출 등을 주제로 한 세션도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제 원자력 수출·안전 콘퍼스, 경주서 개막

국내외 77개 기업·기관 참여

경북 경주 하이코에서 27일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퍼스(NES)'가 개막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을 이끈다'를 주제로 사흘간 계속될 예정이다.

국내외 77개 기업과 기관이 182개 부스에 참여하여, 원전 건설과 해체, 정비·안전, 발전 기자재, 설계·연구 등 원자력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선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 17개국 50개 업체 바이어가 이틀간

수출상담회(B2B)를 진행한다. 글로벌 원전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수출 협력 방안을 찾는다.

첫날 세계원자력협회(WNA)와 뉴스케일파워, 아마존 등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 등을 의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이어 다음날은 경주시와 유럽 원전지역 협력기구 등이 세계 원전도시 서밋(WNCS)을 통해 경험과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마지막 날에는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원전기업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와 글로벌 공급망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